

# 청년청 자립실험실 릴레이 인터뷰

자립실험실이 위치한 청년청은 54개 청년단체가 입주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자립실험실에 참여한 5개 청년단체는 올해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7개월 간 각자의 자립실험 아이템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시도합니다.

기존 청년청 1층의 5개 공간은 유휴공간에 가까운 공간들이었습니다. 서울시와 청년허브는 더 많은 청년들에게 자립실험 공간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청년청 1층 공간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공간들을 자립실험실로 제공하였습니다.

본 인터뷰는 텅 비어있었던 공간을 청년들의 자립실험 공간으로 직접 개척해나가는 자립실험실 운영단체들의 소개를 비롯하여 앞으로의 계획과 기대를 담았습니다. 인터뷰의 내용 일부는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청년허브 페이스북을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 진행 기간

2018년 8월 27일 하루

## 진행 장소

청년청 1층 자립실험실 각 공간

## 인터뷰 대상자

자립실험실 운영단체 5개

## 인터뷰 주요 질문

단체 결성 및 자립실험실 입주 계기

공간 활용/자립실험 계획

## 진행자

서민종 서울시 청년허브 공공플랫폼팀 매니저

김지빈 코디네이터 기록 및 편집

## 목차

스투키 스튜디오 - 스투키 스튜디오

비욘드 넥스트 - 카페 7개월

Bake.X - Bake.X

마이리얼짐 - 득근득근 운동센터

노니논다 - 혼자놀다가게

## 1. 스투키 스튜디오

단체를 어떻게 구성하게 됐고, 목표는 무엇인가?

정유미

둘이 데이터 시각화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회사에서 만들었던 것들이 사람들에게 실제로 쓰이지 않아서 실제로 사람들이 쓰고 필요성을 느끼는 정보를 디자인 해보자 하고 같이 퇴사했다. 그게 3년 전이다. 나와서 여러 자체 작업을 하다가 월경컵 프로젝트는 2년 전에 시작하게 됐다. 처음은 면생리대부터였다. 나부터 겪지 않아도 되는 고통을 일회용 생리대 때문에 겪어야 했다. 스스로 겪는 문제 때문에 다른 월경용품에 대한 정보를 찾고 모으다가 생리컵을 알게 됐다. 우리가 우리 몸을 위해서 월경용품을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선택권과 정보가 거의 없다. 목표는 여성들이 자기 몸을 위한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월경용품을 진짜로 선택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김태경

필요한 정보들이 돈이 안 된다고 해서 아무도 접근하지 않고 기업들이 정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서서 해야 한다는 생각은 예전부터 있었다. 개인적으로 기면증이 있는데, 기면증을 설명하면 사람들이 나도 즐리다, 정도로 반응한다. 내 병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런 것처럼 대해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들을 취합하는 데 관심이 있다.

정유미

월경컵 말고 초반에 관심 있던 주제 중 하나가 약 알려지었다. 나도 약 알려지가 있는데, 매년 병원 갈 때 마다 설명을 해야 했고, 어떤 특정한 상품의 약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성분에 반응하는 거라 브랜드는 다르지만 성분이 비슷한 약을 잘못 먹어서 병원에 계속 가게 된다. 그래서 알려지 관련 정보를 계속 찾아서 다녔는데 의학 정보이기도 해서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가 어려운 정보였고, 정보 시각화도 어려웠다.

또 장애인분들과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눈을 뜨고 공부를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다. 정보 시각화할 때 저희가 실생활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주제들을 다루려고 한다.

### 자립실험실이라는 새로운 공간의 사용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정유미

월경컵을 쓰려면 자신의 질 높이를 알아야 한다. 월경컵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내밀하게 물어보고 확인할 수 있는 주변 사람과 공간이 필요하다. 월경컵이 거의 다 해외 브랜드고 직구로 구매해야 해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후기와 사진만으로는 뽑기 수준일 수 있다. 실제로 만져보고 고를 수 있어야 한다.

자체적으로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계정을 통해서 들어오는 질문은 주로 자기는 어떤 월경컵을 처음에 쓰면 좋은지, 안 들어가거나 안 빠지는 것 같은 실제 사용법과 문제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 그래서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제품을 만져보고 사용법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상담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 가령 잘 착용했는

데 자꾸 샌다거나 하는 문제가 생긴다. 안쪽 닫힌 공간에서 그런 이야기거나 사용법을 알 수 있다.

상담신청은 시간이 필요한 답한 내용은 사전에 인스타그램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공간에 오셔서 받으실 수 있고, 간단한 것은 그냥 찾아오셔서 이야기 나눌 수 있다. 공간 이용 시간은 평일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1시부터 8시까지이고, 일요일과 월요일은 오픈하지는 않는다.

### 자립실험실 입주하게된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은?

정유미

그동안 주로 온라인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왔는데, 직접 만나고 만져볼 오프라인 공간이 필요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스튜디오는 마을버스를 이용해야 해서 사람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공간이었다.

김태경

아직은 자체 프로젝트로 수익 활동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임대료를 내면서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고, 여기에서 시도해보고 싶었다.

### 스투키 스튜디오가 주로 하는 활동이 궁금하다.

정유미

스투키 스튜디오의 활동은 관심 있는 주제의 정보를 취합하고, 정리하고, 내보내고,

아카이빙하는 것이다. 월경컵 제품 정보를 모여라 월경컵 사이트 <모여라 월경컵을> 시작했다. 인스타그램에도 정보와 사진, 글을 올리고 있고 앞으로는 사용경험도 공유하고 상담도 하려고 한다.

김태경

아카이빙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끼리만 정보를 수집하고 모으는 일은 항상 부족하다. 월경컵 유저들이 단순히 정보를 받는 위치가 아니라 같이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생각하고 있다. 월경컵 유저들의 경험과 노하우, 정보를 정보생산자로서 함께 아카이빙 해보는 작업을 해보고 싶다.

이 공간에서는 월경컵 전시도 진행하고 직접 만나 상담을 진행한다.

**직접 월경컵 판매도 진행할 계획인가?**

김태경

우리는 월경컵을 직접 제작하지는 않지만, 한국에서 유통 허가를 받은 상품들을 입점할 생각은 있다.

우리의 메인 상품은 사용 안내서와 디자인 상품이다. 월경컵을 쓰고 있다는 표출, 대화를 촉발시키는 디자인 상품들을 만들고 있다. 사용 안내서는 텀블벅에 펀딩을 진행하기 위해서 작업 중이고, 10월 20~21일 언리미티드 에디션에서 월경컵 입문서와 디자인 상품 판매를 진행한다.

**7개월 뒤 입주 기간이 끝난 이후의 스투키 스튜디오를 상상해본다면?**

정유미

이 공간과 우리 활동을 통해서 월경컵이라는 걸 한번쯤 자신의 선택권 안에 넣는 여성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김태경

다양한 수익원을 마련하고 수집한 데이터들로 활동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 2. 비욘드 넥스트

### 비욘드넥스트라는 단체가 구성된 계기와 목표는 무엇인가?

#### 박상준

군대에 있을 때 ‘음식혁명’을 읽고 채식을 시작했다. 공장식 가축 시설에 대한 비판이 담긴 책인데, 내가 군대에서 가축처럼 길러지고 있다는 생각이 하던 차에 그 책을 읽게 됐다. 그런데 실제 가축이 사육되는 현실은 훨씬 심각하더라. 만약 책을 사회에서 읽었다면 채식을 결심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다. 처음에는 엄격하게 비건으로 시작을 했다가 사회에서는 2-3개월 고기를 먹었고, 채식 지향점이 다양한데 그동안 페스코였다가 최근에는 1년 전부터 다시 비건을 지향한다.

채식을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산다는 건 쉽지 않다. 13년 전에 시작했는데 군대에서 하는 것보다 사회에 나와서 하는 게 힘들었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하다가 정리를 하고 내가 겪는 문제를 다루고 싶었다. 게임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개발자 친구랑 같이 채식 식당 정보를 모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려고 했다.

비건들은 음식 선택권이 거의 없다. 외식할 때 김밥에서 햄 빼고 먹는 식이다. 비건들의 외식 접근성을 해결하고 싶었다. 내가 IT 출신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접근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기술과 정보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더라. 문화적인 문제. 회식 같은 곳에서 항상 고기를 권하는 문화나 안 먹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분위기 같은 것. 문화적인 변화가 우선되어야 했고 일일클래스나 영상 같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알리는 작업을 해왔다. 채식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오프라인 커뮤니티도 만들었다. 모임을 80

회 이상 했는데, 건강을 이유로 시작한 분들은 건강이 좋아졌다. 채식을 하더라도 각자의 지향점과 이유가 모두 다르다. 저는 건강이 이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건강이 좋아진 것은 아니다.

### 자립실험실 입주를 신청한 계기는 무엇인가?

#### 박상준

입주한 계기는 공간이 중요한 카페 사업이 공간이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온라인으로 디저트를 판매하려고 해도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보여주고, 제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같은 분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싶었고, 진화하는 과정을 공유하고 싶었다. 여기는 비건 페스티벌이 열리는 공간이었고, 이 공간에 오는 분들이나 입주해있는 분들이 문화적으로 열려있고 채식은 낯설지 않은 문화라고 느낄 것 같았다.

최근 SK프로보노와 연계해서 행복나래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워크숍 문의가 들어온다. 예전에는 쿠킹 스튜디오를 빌려서 진행하거나 했지만, 지금은 카페가 수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진행할 수 있다.

### 자립실험실 입주 공간에서 하려는 활동은?

#### 박상준

소비 행위를 통해서 문화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 동물성 식품을 소비하던 사람들이 식물성 식품을 소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식을 통해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좋은 영향을 끼치게 하려는 것이다. 식물성 식품의 탄소배출이 육류에 비해 1/3 밖에 안 된다. 비건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끼는 채식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그걸 점점 늘려가서 일주일에 한 끼, 하루에 한 끼로 접근하면 좋겠다. 이번 카페는 소셜벤처로서 기업의 유지와 사회적 임팩트를 동시에 추구한다고 했을 때, 이상적인 방법인 식물성 식품의 판매를 촉진시키려는 것이 목표다. 영국이 유럽에서 2번째로 비건이 많은 나라다. 마트, 편의점, 식당에 채식 메뉴가 많고, 거의 모든 메뉴에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선순환이 된다. 소비자가 있고 시장이 형성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예전보다 비건이 늘어가는 것. 비건 카페에서 디저트로 주력 메뉴로 접근한 것은 완전한 비건음식이 맛없다는 인식이 있는데 디저트는 당도를 식물성으로 조절하면서도 큰 차이 없이 맛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시작했다. 카페 이름은 '카페 7개월'이고 실험을 하는 시간을 소중히 하기 위해서 지었다. 궁금증도 자아낼 수 있고.

## 영업시간과 메뉴가 어떻게 되는가?

### 박상준

영업시간은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공휴일 주말은 운영을 안 하지만 워크숍, 테이크아웃 주문이 들어오면 주말에도 작업한다.

카페에서는 음료, 디저트, 비건 식사를 판매한다. 음료라고 하면 거의 동물성이 아니기는 하지만, 라떼 종류는 우유가 들어가서 두유로 대체해서 만든다. 식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건 버거가 있다. 주력은 디저트. 스콘, 초코렛, 케이크, 마카롱, 앙트르메라고 하는 주력 메뉴를 실험중이다.

## 개인적으로 채식을 시작하고 느끼는 변화가 있나?

### 박상준

건강이 엄청나게 좋아지거나 하진 않는다. 관리에 더 신경을 쓰는 정도다. 이 외에 눈앞에 있는 식품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생산과정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게 음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치와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가끔은 피곤하기도 하다. 외국에는 월요일만 고기를 안 먹는 운동이 있다. 채식 권유 운동가이기도 한 폴 매카트니가 제안했는데,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채식을 하자는 '고기 없는 월요일(Meat Free Monday)'로 살자는 취지다. 베지위크 같은 것도 한다. 우리도. 간헐적인 채식을 권하고 경험해보게 하고 있다.

## 비건 디저트는 어떻게 만드나?

### 박상준

비건 디저트긴 하지만 버터향을 내야 하기 때문에 착향을 해야 한다. 맛이 있다 없다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빠졌을 때 맛이 없다고 느낄 수 있다. 채식은 환경보다 다이어트나 건강을 이유로 대중적인 이슈가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을 홍보에서 신경 쓴다. 재료에서부터 건강하려고 한다. 유기농 사용하기 때문에 재료비가 비싸지는데 재료 단가가 높아지니까 제품의 가격이 높아지게 되더라. 지금은 접점을 찾고 있다.

입주 기간이 끝나는 7개월 이후에 대한 상상을 해본다면?

박상준

이 실험도 결국은 동물성 식품을 지속적으로 소비하는 소비자를 식물성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전환시키려는 것이 목표다. 그러려면 제품의 퀄리티가 높아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실험을 하려고 하고 소비하도록 설득하려고 노력하려고 한다. 비건 온라인 물음 준비하고 있는데 식물성 식품을 만드는 업체들을 만나면서 온라인물음에 입점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 9월 중에 오픈할 예정이고 식품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비건 상품과 모임 등등 다양한 콘텐츠가 올라올 예정이다.

3. Bake.X(베이크엑스)

팀을 결성하게 된 계기는?

주지오

총 4명인데, 원래는 현대 미술 작가, 만화가, 일러스트레이터 등 다양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동안 작업을 하면서는 관객들과 제대로 소통하는 기회가 부족했다. 내 작품이 전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판매가 이뤄지면서 우리 작업으로만 먹고 살고 싶다는 간절함을 가진 네 명이 만나게 됐다.

안나리

우리가 하는 일은 다르지만 어느 순간 서로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더 이상 작업만 해서는 관객과 소통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다 같이 가지고 있더라. 우리 작업을 더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서 지금의 멤버들과 함께 하게 됐다. 자신의 작업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수익구조를 향상하는 것, 상업적인 방향에 우리 작업의 색깔이 묻히지 않게 하면서 잘 살아 나가는 게 목표이다.

입주공간은 어떤 방향으로 구성되었나? 운영 시간은?

주지오

공간 컨셉 자체가 작업실상점이다. 안쪽은 작업을 하는 공간이고 밖으로는 상품진열대가 있다. 판화 작업도 가능해서 워크숍도 진행할 예정이다. 원화, 인쇄물, 책자,

굿즈를 판매하고 워크숍을 기획할 예정이다. 실크스크린 워크숍, 만화가 작가와 함께 하는 크로키 워크숍, 재료 기법 연구 등. 외부 작가와 콜라보해서 전시도 진행할 예정이고, 전기 공간 대여도 생각중이다.

운영 시간은 월~금 오후 3시에서 10시까지 오픈되어 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 논의 중이라 바뀔 수 있지만, 아무래도 판매 공간이다 보니까 오래도록 열어놓는 게 좋을 것 같다. 다들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더라도 작업에 방해를 받는 타입들은 아니라서 괜찮다.

### 자립실험실에서 주로 하고자 하는 활동은?

주지오

기본적으로 작품 연구와 제품 개발을 하고, 생산한 제품 판매와 대시민 워크숍을 하려고 한다. 상설 전시를 통해 시민들과 만나고픈 마음도 있다.

### 자립실험실 입주 지원 이유는?

주지오

자립실험실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여기가 판매 공간으로는 애매하기는 하지만, 다른 공간과 또 다른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였다. 솔직히 우리도 지금 당장 상업공간을 운영할 여력은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공간을 받아서 작은 시도를 해볼 수 있고 경험치를 쌓을 수 있다는 면이 좋았다. 그리고 청년청에는 다른 청년팀들이

많이 있어서 네트워크도 고려하고 있다. 멤버들의 집이 다들 가깝기도 하고.

안나리

고객이 원하는 상품개발을 하고 싶었다. 우리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상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자립실험실에서 그 실험을 하려고 한다. 현대 미술 작업은 상업화하기가 어려운데 시도해보고 싶다. 만화가, 일러스트레이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주고 함께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

### 입주 기간이 끝나는 7개월 뒤를 상상해본다면?

주지오

자립이 100%까지 되지는 않아도 기초가 많이 다져져 있을 것 같다. 충분한 실험을 통해 기존 플랫폼에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지지대가 생겨있을 거라고 믿는다. 소모적인 작업형태가 아닌 노력해서 스스로 시장을 만들 수 있는 습관이 만들어지기만 해도 좋겠다.



## 4. 마이리얼짐

팀이 어떻게 모이게 됐고, 또 목표는 무엇인가?

이준우

우리는 영업&서비스 기획 이준호, 트레이너 최주호, 트레이너 신동민으로 세 명이다. 원래는 운동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곳은 아니었다. 2015년 7월에 시작했을 때 신동민이랑 이준호가 체육 전공생을 위한 콘텐츠를 가르쳐보고 싶었다. 체육관이라는 게 대학에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왔다. 체육 전공생한테 허브 역할을 하는 팀이 되보고 싶었다. 그래서 트레이너들과 콘텐츠를 만들어서 지망생들과 공부하고 대화하는 자리도 만들어서 동아리처럼 운영해왔다. 그때 마침 청년허브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물품이 있다고 알려주셨고, 유희공간에서 가르치고 싶은 사람과 배우고 싶은 사람을 연결해주셔서 일반인 대상의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다. ‘득근득근’이라는 프로그램명으로. 그런데 돈이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위기가 왔고, 그만두자는 생각까지 하게 됐다. 하지만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우리는 분명 앞으로도 뭔가를 같이 할 것 같아서 활동해 온 이름을 그대로 살려서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찾아보자고 이야기하게 됐다. 사업자를 내고 스타트업을 시작했다.

득근득근 운동센터는 어떤 공간이고 또 어떻게 해야 이용할 수 있나?

이준우

이 공간에서 영상촬영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체육센터다. 평일에 운영하는데 오전반과 저녁반으로 나뉘고 오전은 10시, 11시 시작하고 저녁에는 6시, 7시, 8시 프로그램이 있다.

신동민

오프라인으로 운동 프로그램을 진해한다면 온라인으로는 영상 콘텐츠를 제공한다. 운동시간 사이의 점심시간에 영상촬영을 한다. 7개월 동안에만 쓸 수 있는 공간이고 크기도 크지 않아서 수강생은 10명이 맙시뻤이다. 인원이 다 차도 수익이 나기 어렵다. 그래서 온라인과 병행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했다. 원격 수업 콘텐츠. 수강생들은 주 1회 오프라인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보면서 스스로 운동할 수 있도록 코칭한다. 운동법도 제시하고 무엇이 좋아지고 있는지 무엇이 바뀌어나가야 하는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최주호

피드백을 받는 창구는 MVP(핵심 기능만 구현한 최소기능제품) 모델을 만들거나 자체적인 앱을 만들면 좋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 주로 네이버밴드를 통해 소통한다. 올해 안에는 가볍게 MVP 모델을 만들려고 한다.

이준우

다음스토리펀딩 채널을 통해서 수강생을 모집했고, 다음 카페, 카카오톡으로도 모집

한다. 현재 트레이너는 2명. 50플러스 수업도 있다. 빈 시간에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주력한다.

### 운동 프로그램 소개와 자신들만의 강점이 있다면?

신동민

우리만의 강점은 친절함과 지속적인 일상적 관리이다. 운동의 일상적 관리 측면에서도 영상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다. 정보는 정말 많은데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기 힘들다. 운동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잘못되거나 자신에게 안 맞는 운동으로 몸이 망가질 수 있다. 어떤 운동을 시켜도 참여자는 트레이너를 전적으로 믿고 참여하기 때문에 더 섬세하게 운동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개개인에 알맞는 운동을 알려주고, 오프라인과 병행하면서 온라인으로 영상을 전달한다고 했을 때 계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일상에서의 운동이 가능하다.

최주호

헬스장에 사람이 엄청 많다. 이미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 대상이 아니다. 운동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 하루에 5분 만이라도 투자해서 불편함을 없앴으면 좋겠다. 나이가 들면 점점 신체활동이 감소하고 사무직 분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상체, 하체, 복근, 유산소, 어깨/손목 관련 운동반을 만들었다. 처음에 오면 무조건 5가지 움직임 검사를 실시한다. 어디가 뭉쳐있고 어떤 근육이 약해져 있는지 검사하고 개개인별로 운동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검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입구이자 OT다. 신청은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할 수 있다. 검사하고 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이준우

피티나 필라테스 같은 비싼 운동들 회당 비용이 비싸다. 저희 프로그램은 일단 저렴하다. 월권은 주 2회 6만 9천원, 주3회 10만 9천원. 처음에는 많은 사람을 한 번에 같이 운동시키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1시간에 여러 명을 코칭하다 보니까 트레이너도 고단하고 참여자들도 만족도가 낮더라.

### 자립실험실 입주 신청 이유는?

이준우

자립을 위해서다. 활동하면서 계속 공간이 필요했다. 서울시, 혁신파크, 지역 어디든 유휴공간을 찾아다니고 있었다. 센터들이 조성될 때 운동공간이 필요하지 않냐고 제안 드리기도 하는데 쉽지가 않다. 이렇게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루공간이 많이 있지 않다.

### 지원이 끝나는 7개월 후에는 어떤 모습일 것 같나?

이준우

스타트업의 목표는 명확하다. 자립실험실도 어디까지나 공공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공간인데, 여기를 벗어날 수 있을 때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려는 것이다. 한 달에 한 번 월세를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그래서 오프라인 공간에만 기

대지 않으려고 한다. 솔직하게 말하면 서울시에 연장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실험은 할 수 있지만 자립은 할 수 없어서 7개월은 모자라다. 만약 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나가게 된다면 또 다른 유희공간을 찾아 떠날 것 같다.

## 5. 노니논다

팀 결성 계기와 지향점과 목표는?

윤지연

단체는 12년도에 시작했고 이제 6년차다. 어른들의 놀이 문화가 솔로 시작해 솔로 끝난다고 생각한다. 친구들과 무엇을 하는지 봤을 때도 주로 영화, 공연 같은 보는 콘텐츠 위주다.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본다'라는 수동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어른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놀이문화가 필요하다 생각했고 이를 위한 놀이문화 콘텐츠와 공간을 만드는 게 목표다.

'혼자놀다가게' 공간은 어떤 방향으로 구성되었나?

윤지연

소소하게 그냥 앉아서 뭔가를 하면서 놀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다. 야외에서 뛰어 놀고 몸 쓰는 것만이 노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 공간은 오시는 분들이 여기를 낯설게 느끼지 않고 방이나 집처럼 편하게 느꼈으면 했다. 가벽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닌데 소품으로 구성을 다양하게 했다. 물입이 가능한 보드게임 콘텐츠도 있다. 입식과 좌식이 모두 가능하다.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다과도 준비하고 있다. 영업시간은 평일 저녁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차차 주말도 확대하려고 한다.

## 주력 프로그램과 참여방법은?

윤지연

‘혼자놀다가게’는 우리가 일반적인 보드게임카페를 가려면 지인들과 함께 가야 한다. 혼자서 즐길 수 없는 분위기다. 취향에 따라서 게임 취향도 다르고 편한 시간도 다를텐데 혼자 오면 이용을 못한다. 이 가게는 혼자와서도 게임을 즐기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도 있는 방식을 추구한다. 사전 신청을 할 필요는 없고 오셔서 참여하면 된다. 가격은 한 시간은 4,000원, 하루는 7,000원이다. 10회 이용권은 3만원. 정기권을 만들어서 계속 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 어떤 게임을 할 수 있나?

이수연

플레이할 수 있는 보드게임은 매주 정한다. 보드게임카페처럼 여러 보드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이주의 보드게임이라고 테마가 있는 선정 게임을 플레이 하는 방식이다. 크게 1인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 카드게임, 전략 게임도 있고 손털기 게임, 협력할 수 있는 게임들이 있다. 마피아류 게임. 랭킹 게임이 있는데 점수가 나오는 게임이라서 한 달에 한 번씩 등수를 정해서 점수가 높은 사람한테는 상품을 주려고 한다. ‘아그리콜라’라고 농사를 지어서 작물을 수확하는 그런 게임이다. 물론 혼자 오는 사람들을 위한 1인 게임이 있다.

## 자립실험실 입주 신청 이유는?

윤지연

공간을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도통 공간을 얻기가 쉽지 않았다. 자본금이 없는 상태였고 청년 상회나 전통시장 지원도 해봤는데 면접에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왜 이런 걸 하러 오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시더라. 부정적인 피드백에도 포기하지 않아서 서울로에서 한시적으로 보드게임카페를 한다거나 여러 시도는 해왔다. 계속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사업 공고를 보고 신청하게 됐다. 과연 사람들이 우리의 취재를 이해하고 즐기고 찾아올 수 있을까 궁금하고 실험을 하고 싶다.

## 지원이 끝난 7개월 이후에 대한 상상을 해본다면?

윤지연

지금은 여름이나 가을에 야외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단체의 수익에 있어서 겨울 시즌이 어렵다. 겨울에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목표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간을 운영해서 지속시키고 싶다.

## 혼자놀다가게에 혼자 오면 어떻게 놀 수 있나?

이수연

1인 플레이 게임이 기본적으로 있다. 그리고 이곳에는 게임 마스터가 1명에서 2명

은 항상 상주하고 있다. 혼자 오더라도 마스터와 함께 2인 플레이는 언제나 가능하고 다른 테이블과 접속해서 플레이를 할 수도 있다. 마스터에게 게임을 배우고 나면 다른 테이블과 만나서 마치 가상의 공간에서 서로 접속하듯이 진행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접속하는 과정은 온라인과 동일하다. 온라인에서 하는 방식을 오프라인으로 가져온 거라고 보면 된다.